

# 주간기도정보

2024. 9. 10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나부터 회개·오직 예수만’...해운대 백사장 뒤덮은 10만 기도 소리

부산 해운대에서 10년 만의 대규모 성령 집회 열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2024 해운대성령대집회’가 열렸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는 약 10만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 지역 1,800여 교회와 울산, 경남 등 33개 지역 교계가 동참했다.

이번 집회는 2014년 5월 25일 열린 ‘해운대성령대집회 525 회개의 날’을 재현한 것으로, 당시는 폭우가 쏟아졌고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의 열기만큼은 변함없었다.

집회에서는 이찬수(분당우리교회), 류정길(제주성안교회)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각각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흐름이 바뀌다’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와 믿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목사는 “회개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그럼에도 행위적인 열심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언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었는지 깨닫고 십자가 감격을 회복하자”고 권면했다.

류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모가 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될 것”이라며 “영적 어둠의 사사 시대를 끝낸 사무엘처럼 다음세대를 일으키자”고 힘주어 말했다.

해운대성령대집회는 2007년 ‘해운대부흥운동’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평양대부흥’을 기념하는 행사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강화하고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와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사회와 교회를 일깨우기 위한 ‘9·8 해운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교회와 민족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며, 진정한 변화와 부흥만이 유일한 회복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해운대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한국교회와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집회 전부터 백사장은 밀려드는 인파로 열기를 띠었고, 해운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성도들로 가득 찼다. 모인 헌금은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열릴 ‘청소년월드캠프’에 사용될 예정이다. 집회에는 부산 1,800여 교회가 연합한 ‘리바이벌콰이어1800찬양대’와 예람워십, 제이어스, 부산연합찬양팀 등이 참여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졌다.

10년 전 해운대집회 당시 모래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한 청년 신학생은 목회자가 돼 다시 모래밭을 밟았다. 새 한교회 교육부를 맡고 있는 남동균(38) 목사는 “어떤 목회를 어디서 할지 막막했던 당시 집회를 통해 다음세대 사역에 확신을 뒀고, 부산에서 사역하게 됐다”면서 “오늘 집회에서 청년 80명과 행사 깃발을 들고 부산·경남 교계 영적 각성을 놓고 중보기도하려 한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랏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7:3)**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요한계시록 2:4-5)**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앞에 선 10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사 죄악에 물든 이 땅에 참된 변화와 회복을 주옵소서. 이 세상 풍조와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은혜로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어둠의 영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예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산에서 시작된 회개와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의 파도가 모든 한국교회와 북한과 열방에 흐르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국가는 의무로, 인민은 권리로...북한, ‘사회주의 법’ 선전**

**현실은 아빠는 직장, 엄마는 장마당...홀로 남겨진 5세 아동 결국**



북한이 ‘사회주의 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대외 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9월호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강신철과의 인터뷰를 실고 최근 몇 년간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사회주의 법’을 소개했다.

강 책임부원은 “사회주의 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는 대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보호법, 장애인보호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사회급양법, 인민보건법을 언급하며 그 중 사회급양법은 “사회급양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이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 요구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책임부원은 육아법도 설명했다. 그는 “4개의 장애 61개 조항으로 구성된 육아법은 이 법의 사명과 기본 원칙, 규제 분야를 비롯하여 어린이 식료품의 생산과 공급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육아법 2조에는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에게 젓제품(유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월 “출생 후 7개월부터 6살 나이에 해당하는 전국의 백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젓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 데 대한 새로운 육아정책”이라며 유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민을 위한 법’으로 주민연료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을 소개한 강 책임부원은 이 모든 법이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의무로, 인민은 권리로’라는 말 속에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고 체제를 치켜세웠다.

인터뷰와 함께 장애인들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장면 등 ‘사회주의 법’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법률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대중에게 국가의 복지 혜택을 강조하며 민심을 다독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달 함경남도에서 5세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외할머니가 병에 걸리면서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됐지만, 아버지는 직장에 어머니는 생계 활동을 위해 장마당에 나가 늘 아이 혼자 집에 남겨진 상황이었다. 이는 북한 당국의 무상교육 선전과 달리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유치원에조차 보낼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출처: 뉴스1, 데일리NK 종합).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이사야 32:6,8)**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시편 16:5-7)**

하나님,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법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는 북한의 실상을 주께 고합니다. 여러 규제로 인민의 권리를 보장한다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해 어린 자녀마저 죽음에 이르게 만든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함을 꾸짖어 주시고 훈계하여 주소서. 지금도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시라 나의 산업이시요, 분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북한 성도들이 이 복된 소식의 증인인 줄 믿사오니 이들을 영혼 구원의 존귀한 일에 서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께 나아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96% 범죄로 인식 못해…저연령화 급속 진행’**  
 답페이크 가담자 70% 10대·4년전 ‘N번방’보다 급격히 저연령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96%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전 ‘N번방’ 사건 당시 검거자 30%가 10대였던 반면 최근에는 70%까지 높아지는 등 저연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의 96%는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소년 당사자들을 위한 성교육 정책과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답페이크 성범죄는 학교 친구, 여동생, 엄마까지도 서슴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었다는 게 충격이며 공포”라며 “매일 보는 이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고 조롱하는 실상은 사회 유지의 기초단위인 신뢰 공동체까지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답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범죄자 중 70%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과 4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당시 검거자 30%가 10대였던 것에 비하면 범죄 행위자 연령이 급격하게 저연령화됐다”며 “코로나19를 지나며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이 일상이 됐고, 무방비 상태에서 온라인 포르노와 혐오문화에 그대로 노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유입경로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임, 메신저”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는 최근 중고생들이 흔히 당하는 딥페이크 범죄 중에 가해자가 도움을 줄 사람처럼 위장해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너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에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우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다. 피해를 본 아이들은 당황한 마음에 부모나 경찰 등 정상적인 도움을 받기보다 이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런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먼저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언론회는 딥페이크를 신속하게 만들어 내고, 놀이문화로 받아들이기 쉬운 세대는 아무래도 10대들이라며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이며 타인에 대한 인격 살인임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뉴스1, 연합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3-14)**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명기 6:6-9)**

하나님, 디지털 성범죄자의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질 뿐 아니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도 못 느낄 만큼 죄에 대해 무감각한 청소년들을 애통한 심령으로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날로 더해가는 이들을 만나주셔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한국 교회와 부모세대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마음에 새겨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 열방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알리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